

태신자 운동

영혼을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예수님
복음 전파는 성도의 특권이자 사명



태신자 등록 접수처 앞에 선 전도부원들 - 1999



전도부 2000/1000 정책 세미나(뱃별회관) - 1998



대학로에 나선 찬양전도단 - 1999

새천년을 앞두고 전도부 주관으로 2000/1000 전도목표 아래 1999년 한 해 동안 태신자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전년도 2월 21일 양재동 뱃별회관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중)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 각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두고 전도하는 이 운동을 동년 4·5월 전교인에게 홍보하고 구역별로 100시간 릴레이 기도를 실시했다. 6·7월에는 253명 교인이 태신자 632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8·9월 태신자를 접촉하는 기간에 이어 10월 11~16일 신양사경회에 태신자 전원을 출석시켰다. 한편 동년 7월 1일 총회전도대회에 참가해 종로5가를 중심으로 48명, 7월 11일 청년선교회와 4·5·6남선교회 회원 80여명이 대학로에 가서 찬양전도집회(사진: 하)를 열어 45명의 결신자를 맞이하기도 했다.

김한진 집사(부인: 강형옥 집사)는 1995년부터 금년으로 10년째 단독 노방전도에 나서고 있다. 성경에서 에스겔을 읽다가 강한 도전을 받고 매일 오후 4시면 탑골공원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한다. 김 집사는 성도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류와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화수양관 봉헌

서울에서 60킬로(150리) 서해안에
다솜관 · 두레관과 조형물 들어서



봉헌 감사예배(다솜관에서) - 1998

1998년 5월 1일(금) 오전 11시 강화수양관 봉헌예배를 드리고 조형물을 제막했다. 1989년 7월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760-7번지에 부지를 매입한 지 9년만에 예배처소(1층: 150명)와 숙식처소(3층: 158명)를 마련한 것이다. 대지 4,889㎡ 위에 설계를 임재용건축사무소, 시공을 이세산업(주)이 맡아 건축면적 782⁶⁰㎡ (연면적 1,427⁷⁰㎡: 427명)의 두 건물을 1년만에 지었는데 12억여원을 투입했다. 1998년 2월 예배처소는 다솜관(사랑의 뜻), 숙식처소는 두레관(협력의 뜻)으로 명명하고 조형물은 1997년 2월 작고한 김기환 장로의 유언(헌금)으로 설치했다.



예배처소 다솜관



숙식처소 두레관



봉헌 이전 시대의 강화수양관 정문 - 1990



조형물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막식

성경퀴즈대회

제1회 우승은 이대병원 간호사 청년1부팀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1998년 6월 28일 본당에서 성경통신부가 주관하는 제1회 성경퀴즈대회 결선전이 열렸다. 이날의 수상자는 1등에 청년1부팀(이영규 · 이미정 · 윤윤희 · 이경오), 2등에 제3교구팀(김남순 · 김길중 · 장진희 · 김금숙), 3등에 제7교구팀(이숙자 · 고광숙 · 송우주 · 유진희), 장려상에 제4교구팀이었으며 황영태 목사(주관식)와 윤영도 목사(객관식)가 출제했다.(사진: 상)



1999년 6월 13일 소예배실에서 제2회 성경퀴즈대회 결선전을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영광의 1등은 제1청년선교회팀(이선규 · 김웅중 · 김상훈 · 정두영), 2등은 제2교구팀(구광자 · 송선희 · 김옥선 · 박동순), 3등은 제8교구팀(김영선 · 권신애 · 박정애 · 신호덕), 장려상은 제6교구팀이었으며 김은섭 목사가 출제했다.(사진: 하)



연동찬양선교단

'마하나임' '하늘소리' 이어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연동찬양선교단 - 1998



하늘소리찬양단 - 1999

1993년 4월 찬양을 즐거하는 이들이 모여 마하나임 찬양단을 조직하고 1997년 1월 서은성 목사의 지도로 연동찬양선교단을 창립했다. 1995년 5월 제1·2청년선교회에서 '소고 치며 춤을 추는' 하늘소리찬양단을 조직했으나 2년만에 찬양선교단으로 흡수됐다. 2003년 12월에 이르러 찬양선교단 내의 청년부찬양팀을 예람찬양팀으로, 청년선교회찬양팀을 하늘찬양팀으로 개명했으며 동년 5월 송영석 지도 전도사에 이어 장석 전도사가 부임했다. 교회의 부흥사경회와 송구영신예배를 위시해 대내외의 각종 행사에 나서서 찬양을 주도하는 찬양선교단은 1998년 찬양테이프를 제작하고 2000년에는 1년간 매월 엘림양로원에 가서 봉사 및 노방전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수련회와 기도회, 그리고 줄기찬 연습에 매진하는 찬양선교단은 2003년 8월 우간다에 단기선교를 다녀오고 동년 9월 전도찬양 집회를 가졌다.



예람찬양팀 - 2004



하늘찬양팀 - 2004

연동원로관

허가인원 18명에 평균 입주자 12명
사랑 · 위안 · 친교 속에 삶이 즐거워



연동복지원은 1998년 12월 1일 종로구 연지동 106-5번지에 복지시설인 연동원로관을 설립하고 65세 이상 연동교인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학로에서 골목으로 약간 들어

간 곳에 있는 원로관은 지하 1층 · 지상 3층(연건평 229.88㎡) 안에 각층마다 방 3개씩과 주방 및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빌라주택이다. 당국의 입주허가 인원은 남자 3명 · 여자 6명인데

최초 3명으로 시작해 2004년의 경우 남자 3명 · 여자 10명이 입주해 있다. 보증금은 1인실 6백만원, 2인실 4백만원, 3인실 3백만원이며 월 생활비는 20만원이다.

사진

상 : 신광재 복지사와 대담 - 2002
중 : 대보름 옷놀이 - 2004
하 : 어버이날 찾아온 누상 어린이들 - 2004

종로5가역

복음 선교의 시발역 사랑 나누기 중간역



1999년 4월 14일(수)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연동교회와 종로5가역이 인연을 맺는 자매결연예배를 드렸다. 지하철선교회 사무총장인 유중현 목사의 인도로 최문규 장로(전도부장)의 기도와 이성희 목사의 설교(정보시대의 지하철 선교)가 있었고 이어서 결연패 증정과 지하철공사연합신우회장인 정한모 집사의 축사, 이성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사진 : 상) 그 이듬해인 2000년 8월 13일 사회부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사회부와 전도부 청년부원들이 사랑의 차 나누기에 나섰다. 이날 대상자는 450여명. (사진 중 : 행인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회부장 이해순 장로) 2000년 12월 11일 전도부는 종로5가역 신문판매대 옆에 대형 트리를 세워 점등하고 (사진 : 맨 위) 성탄의 기쁨을 지역사회 주민과 나눴다. "성탄의 기쁨이 20세기를 뛰어 넘어 새천년 온누리에 퍼지게 하소서" 2001년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전도부 주관으로 역장과 함께 어버이들에게 꽃을 달아주기도 했다. (사진 : 하)



사할린 연동교회

교포에 이어 러시아인도 출석
독립적 교회 운영이 희망사항



사할린연동교회당 - 2000



연동교회 국제선교회의 노력으로 러시아의 동남쪽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사할린연동교회를 세우고 1992년 8월 19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동년 6월 8일 송준섭·박진경 선교사 내외가 도착해 불모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 7월 류용현·박혜신 선교사 내외가 부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 9월 신축 교회당(연104평)을 기공하고 1999년 6월 헌당, 이때 이성희 목사 내외와 세계선교회장 이현정 장로 등 11명이 참석했다. 2003년 6월 최초 두 권사 임직식에는 역시 이성희 목사 내외와 세계선교회장 고명환 장로 외 고춘섭 장로·김학영 집사가 참석했다. 2003년도 교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례 교인 : 30여명 · 재적교인 : 50여명 · 주일학교 학생 : 20여명 · 서리집사 : 8명 · 명예집사 : 4명 · 권찰 : 3명



헌당예배 - 1999



교회창립 8주년 기념 성도 일동 - 2000



교회당 봉헌예배에 참석한 서울연동방문단 - 1999



교육 · 전도 · 의료 · 이미용 서울연동선교단 - 2000

연동 청소년학교

1992년 초등학교 과정 한글반을 신설
2003년 대안학교 과정 청소년반 신설



교내체육대회(장충동 리틀야구장) - 1999



개교 20주년 기념식에서 교사들의 찬양 - 2001



특활발표회(풍물놀이) - 2002



한글 8회 · 중등 28회 · 고등 25회 졸업 기념 - 1998



한글 10회 · 중등 30회 · 고등 27회 졸업 기념 - 2000

1981년 2월 근로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개설한 연동청소년학교는 1992년 1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외에 한글과정을 신설해 한글반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 8월 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원 산

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2003년 신체장애자 중심의 청소년반을 신설, 학생을 모집해 도심권 대안학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이며 동년에 서울시 교육청에 학력인정을 신청했으나 반려되고 말았다. 2004년

3월 통계에 의하면 교직원 44명에 중등과정 34회, 고등과정 31회, 한글과정 11회, 청소년과정 1회, 총 1,21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제1대 진영득 교장에 이어 지금 제8대 교장은 양호성 장로이다.